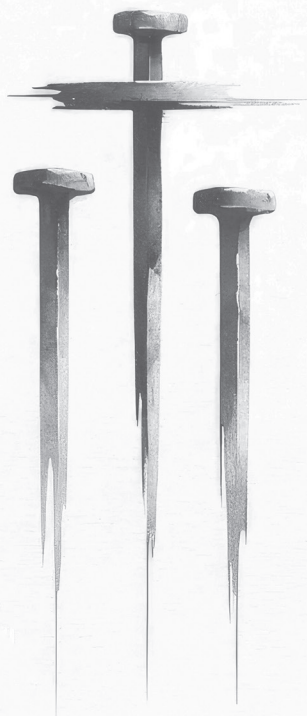


첫째 주간: 자백의 무게감

너무 빈번한 회개와 고백을 한 나머지 우리의 자백들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 어찌 풍랑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 어찌 눈물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 어찌 후회 없는 인생만 이어지겠는가 // 영원히 잔잔한 물, 평화로운 땅은 없을 터 / 그들도 뒤집어지고 뒤바뀌기를 반복하겠지 / 신의 정한 때를 순환하듯 직면 할거다 // 어느 누구도 모를 일이다 / 어떤 것들이 사상누각이 될는지...

['사상누각' - 이상운]



창세기 3:19

“.....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마침 말동무가 고팠던 환자를 만나면 장터에 좌판을 펼치듯 인생사를 풀어 놓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태클을 걸지 않으면 오랜 시간 붙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고향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의 향수를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갑니다. 고향 산천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친 하루를 쉬게 해줄 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술한 이주자들이 대륙을 이동하고, 버거운 집 값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안온한 집과 영원한 고향이 존재한다면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될 터입니다.

성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친숙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마음 속에는 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나에겐 먼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날을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에게 속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화려한 성공과 안락함이 기다린다고 부추깁니다. 그런 까닭에 사유함을 잃은 우리는 막연하게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묘연해집니다.

천상병 시인의 <새>라는 유고집에는 다음과 같은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고통의 나날을 살았음에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되레 통증 없이는 살아내지 못했던 인생을 설레었던 소풍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곤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생각을 즐겨 또는 간혹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무감각을,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겸허히 현주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보다 세상을 중시하며 살았노라고, 하나님보다 화려한 우상들이 먼저였노라고, 흠으로 돌아가기 싫었노라고, 현세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관심조차 없었노라고, 머리를 조아려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흠이란 것을 잊지 말라고 이마에 아로새기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시 한 구절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된 삶을 마치는 날,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고, 참 아름다웠다고 미소 짓기를 바라 봅니다.

실천적
독상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흠으로, 하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과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